



장수교육지원청, 일반직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 연수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7일, 장수청소년쉼터 달빛에서 임용 3년 이하 저경력 공무원의 조직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저경력 공무원과 장수교육지원청 6, 7급 선배 공무원을 1:1로 매칭하여 대회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선배와 후배,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장수교육지원청 정진원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며,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체감도를 높이고, 더욱 효과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고편호 기자



태고종 마이산탑사, 진안군에 ‘자비의 백미’ 나눔

한국불교태고종 마이산탑사(주지 진성스님)는 지난 6일 봄 천지기도 및 백미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마이산탑사는 진안군에 백미 10kg 300포(1,000여kg 상당)를 후원했다. 군은 후원받은 백미를 진안군 관내 독거 노인 장애기정 등 저소득 취약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성스님은 “오늘 천지기도 영산대제 기도제를 통해서 우리 진인이 보다 더 안정되고 번영한 고장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노암동-여수 화양면, 친선 교류행사 개최

남원시 노암동(동장 차미화)은 지난 3일 여수시 화양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양 기관간 친선 교류 행사를 가졌다. 양 기관은 2024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해서 교류하고 양 단체 간 우의를 다져왔으며, 이번 행사는 양 지역 간 화합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춘향제 대동길놀이에 화양면 주민자치와 원들의 참여를 약속, 제2동양경찰학교 남원시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등 남원시정 홍보에 집중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흑돼지전문점, 운봉읍에 돼지고기 기부

남원시 운봉읍 관계자와 운봉흑돼지전문점(대표 신동권)에서 취약계층 반찬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운봉흑돼지전문점은 현재 운봉을 척한 기계 9호점으로, 운을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캠페인에 참여 중이며, 이번 돼지고기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신동권 대표는 “이번 기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로 따뜻한 복지 실현

익산시-우체국-지사협,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협약… 복지 사각 해소 · 고립 예방

익산시가 우체국, 지역사회와 손잡고 고립된 이웃을 위한 돌봄 복지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익산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익산우체국,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김종철 익산우체국 국장, 성시종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시는 집배원들을 ‘우리미를행복지킴’(영예복지공무원)로 위촉한다. 익산우체국 집배원들은 월 2회 대상 기관을 방문해 화장지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시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단순한 물품 전달



을 넘어, 대상자 발굴과 위기 징후 감지 등 복지 사각 지대 해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현은 시장은 “행정과 우체국,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따뜻한 돌봄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완주군, 산불피해 이재민돕기 성금 1여억원 전달

완주군이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지역 등 주민들을 돕기 위해 공직자들의 성금 2000만 원을 비롯해 총 1억여 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완주군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성금을 마련하고,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협조를 구했다.

이번 성금 모금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현재 완주군에서는 지원봉사센터의 납차 지원, 각 사회단체의 인력지원과 구호물품, 생필품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의 이재민 돋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삽자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지난 주말 개최 예정이었던 모악산 웨일니스 축제를 취소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정읍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 20곳과 협약… 일자리 환경 조성

정읍시가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내 20개 기업·기관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복지기관 등과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여성친화일촌기업은 정읍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 약정을 체결한 기업·기관으로, 센터는 2009년부터 매년 20곳 안팎의 기업과 협약을 맺으며 협력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유)줌비아오텍, (유)더착한농산물, (주)금산이엔지, (주)식감(주)에스앤피, (주)동원에프앤비 정읍공장, (주)풀스원, MC정읍푸드, 진하정공 등 9개 기업과 느티나무, (주)큰사랑아카데미, 동행요양원, 우리요양원, 참시민체가나눔복지센터, 미소재가노인복지센터, 화해노인복지센터, 헛살재가복지센터, 정읍재활주간복지센터, 해아립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더미래 등 11개 기관으로 총 20곳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과 기관은 여성 인력의 고용 확대와 양질의 취



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구인·구직 정보 공유는 물론 협판 부작을 통해 여성친화 경영 실천의지를 내비쳤다.

정읍새일센터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새일여성인턴십 우선 연계, 성희롱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재직자 교육, 취업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가수 김용임, 정읍시에 고향사랑 300만원 기탁

트로트 가수이자 정읍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용임 씨가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응원을 이어갔다.

시는 4일 가수 김용임 씨가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됐다.

김용임 씨는 1984년 ‘독립’으로 데뷔한 이래 ‘사랑님’, ‘부모 같은 인생’, ‘내장녀’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트로트 스타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 정읍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매년 꾸준히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기부에 참여한 김용임 씨는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정읍을 응원하며 기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산불 예방 · 산림 보호 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회장 장성태)는 지난 6일 모의산 로컬푸드 앞에서 산불예방 및 산림 보호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철진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가



운데, 등산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산행 및 불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협의회 임원 및 각 동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산불 예방 관련 홍보 활동 △등산로

및 주변 쓰레기 수거 활동 △대원사까지의 등산 및 회원 간 교류 △산불 예방 문구가 인쇄된 물티슈 배포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참여 등과 함께 △SNS를 통한 실시간 홍보 및 시민 참여 유도 등의 활동이 전개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장성태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등산객들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끗한 산림 환경을 함께 가꿔 나가는 데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운 기자



장계농협, 남인천농협과 축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웅)은 남인천농협(조합장 이태선)과 손을 맞잡고 장수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한우 직거래 장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남인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난 3~4일 실시했으며, 장계 및 남인천 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약 5,500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려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장계농협은 산지농협으로써 남인천농협은 소비자농협으로써 유대감 형성 및 협력 강화를 통하여 축산물 판매 사업을 연계하고 양대 농협의 상생과 발전을 기약하였다.

곽점웅 장계농협 조합장은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직거래장터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유동 체널 다변화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편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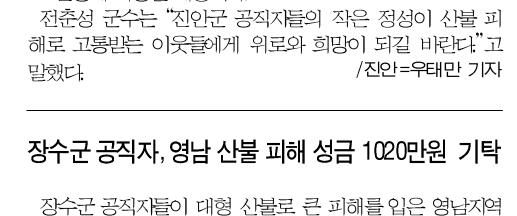


군산시 사회복지공무원, 청암산 ‘플로깅’ 활동 전개

군산시 사회복지공무원 모임인 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강영란, 이동정회장)는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청암산 일대에서 ‘에코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열린 행사는 군산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군행연’)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청암산 물레길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에 힘썼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에서 시작된 환경 보호 운동으로, ‘조깅(Jogging)’과 ‘이삭줍기(Picking Up)’의 합성어이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산책이나 운동을 넘어, 식목일을 기념하여 지역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군산=이재준 기자



장수군 공직자, 영남 산불 피해 성금 1020만원 기탁

장수군 공직자들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주민들을 돋기 위해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군은 7일 전주성장인군수를 비롯한 군청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총 1,02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돋기 위해 꾸준히 일상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시장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주성장 군수는 “전주군 공직자들의 작은 정성이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김기두 기자

장수군 공직자들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주민들을 돋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장수군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20만원을 기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장수군 소속 공직자 675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 공직자들의 진심 어린 정성이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수군은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편호 기자